

예수님을 만나다 6: 세상의 빛, 예수

요한복음 9 장

예수님은 “나는 세상의 빛이다” 라는 선언과 함께, 나면서부터 눈먼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적을 통해서,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이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십니다.

1. 성경 교사님께서 요한복음 9 장 내용을 요약해 주시겠습니다.
2.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이며, 왜 그들은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했는지 성경 교사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.
3.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이적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십니다. 눈을 뜨게 된 사람도 자신의 눈이 뜨이게 되는 이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.

이사야 42:7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,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 내고,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 줄 것이다.

요한복음 9:33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,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. 38 그는 “주님, 내가 믿습니다” 하고 말하고서,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.